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석림의 증*

석림의 증은 오리엔트에서 위치한 '까리옹'의 정식명칭으로 '석학들의 숲에서 울리는 종'이란 뜻이다.

글 **이효철** 화학과 및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교수 · ihee57@gmail.com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종이 위에 스케치를 시작할 때의 느낌이랄까.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와 꿈, 약간의 흥분과 두려움. 19년 전 봄 내가 KAIST에 입학할 당시의 기억을 애써 떠올려본다.

그 때와 비교하면 참 많은 것이 변했다. 당시는 KAIST 주변이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았던 때라 택시조차 들어오길 꺼려했었다. 자주 다니지도 않던 시내버스를 타고 정문에 내려 기숙사까지 걸어간 길은 어찌나 멀던지. 캠퍼스 곳곳은 황량했지만 이제는 거의 숲을 이루고 못보던 건물도 많이 생겼다. 지금은 가

끔 기숙사 쪽으로 돌아서 마징가 동산을 넘어 오리 연못 쪽으로 산책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내가 만약 대학생이던 그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내게 새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 생각을 나누다 보면 KAIST 후배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성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양한 공부와 체험을 하고 싶다. 그 시절 나는 성적을 위해 너무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적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좌우되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경우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비례한다. 예를 들어 B⁰에서 B⁺로 올리는 노력에 비해 A⁰에서 A⁺로 올리는 노력이 훨씬 많이 든다. 그래서 최상의 성적을 위해 실수하지 않으려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했다. 만약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적당한 성적에 만족하고, 남은 시간은 새로운 것을 찾아 공부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

학기말이 되면 성적을 올려달라는 학생들의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 물론 좋은 학점을 요구하는 사회의 압박감이 조금하게 만들겠지만 이런 조급함에 이끌려 학점에 연연하기보다 폭넓은 공부와 열정을 쌓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것이 멀리 볼 때 우리 인생에 더 값진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둘째로 교수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재학 시절 나는 거의 선배들의 말만 신뢰했다. 사실 그 때는 교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 자체를 막연히 두려워했다. 막상 내가 교수가 되고 보니 지금의 학생들도 예전의 나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선배의 조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폭넓은 시야를 가지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년차가 얼마 나지 않는 선배는 약간의 경험이 더 있을 뿐 세계관이 더 성숙돼 있거나 깊은

이효철 교수는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시카고대 박사후연구원을 거쳤다. 2003년 31세의 나이로 KAIST 화학과 교수로 부임해 2005년에는 단백질 분자의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연구로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했다. 2007년에는 당시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선정하는 제10회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으며, 같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에 선정돼 현재 '시간 분해회절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이효철

사고를 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인생을 산 시간도 길고 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이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교수님들은 다들 하나 같이 바쁘지만 학생들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있고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갈 때 더 느긋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던 생각을 버리고 싶다. 살아보니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공부에 필요한 창의력, 상상력, 분석력, 응용력 외에도 필요한 것이 참 많다. 예를 들면 대화 능력, 대인 능력, 작문 능력, 발표력 등이다.

KAIST 학생은 대체로 전자는 탁월한 반면 후자의 능력들이 부족한 것 같다. 내 연구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소개는 고사하고 용건의 핵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는 마치 컴퓨터는 최고급인데 모니터나 스피커는 싸구려인 것과 같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며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는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기쁜 소식은 이 능력들도 훈련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렇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뭔가를 부탁해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같은 내용을 발표해도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하드웨어와 그 위에 쌓아 올린 소통의 능력, 그리고 타인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인격. 이것이 이 세대를,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 견고한 실력과 함께 소통의 영향력까지 갖춘 KAIST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KAIST